

# '장수형 똑! 똑! 복지 울타리' 추진

### 장수군, 핵심사업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

장수군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장수형 복지모델 똑! 똑! 복지 울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군은 은둔형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밀도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약화와 지역특성에 집중했으며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 '복지안전 취약마을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등 총 7개의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복지안전 울타리 행복마차'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장수를 13개 마을에 병동탑차가 방문해 생필품 등 물품 구

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협의체 예방 활동을 통해 복지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사업이다.

'찾아가는 복지사랑방'은 관내 복지·안전에 취약한 마을을 선정해 총 63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 현장 상담 및 복지서비스 안내,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복지·안전 취약 발굴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행정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력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기타 사회적 고립가구를 선별해 우체국 집배원이 정기적으로 생필품을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사업, AI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초기상담 및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

최훈식 군수는 "복지 울타리 사업은 지역사회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사업이다"며 "살기 좋은 행복장수 실현을 위해 추가적인 복지사업 발굴 등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추석 앞두고 과원 관리 심기일전

### 무주군, 호로 햇벌 데임 및 병해 예방 주력

무주 반딧불사와 호로 품종의 출하가 본격화된 가운데 무주군은 한낮 온도가 33도를 넘는 고온다습한 환경 속 병해와 직사광선 노출로 인한 일소 피해(이하 햇벌 데임)를 막기 위한 노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햇벌 데임 초기 증상은 과실 표면이 얼은 노란색으로 변하고 심해지면 해당 부위가 썩고 탄저병 등 2차 병 또한 감염되기 쉽다. 햇벌 데임 증상이 심한 사과는 빨리 따내서 다른 과실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햇벌 데임 피해는 과수에 수분이 부족했을 때 발생하기 쉬운 만큼 과수원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나뭇가지를 과실 쪽으로 끌어당겨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부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이종철 과장은 "2022년부터 1.5ha 규모의 노지 과원에 햇벌 차단막 적용 사업을 추진해 과원 온도를 3°C 이상 낮췄고 햇벌 데임 피해 역시, 차광 전 30%에서 5% 미만으로 감소시켰다"라며 "협장 출장을 통해 효과적인 탄저병 방제 기술을 지도하고 햇벌 데임 피해에 취약한 과원을 방문해 작업(일 제



거) 방법과 반사필름 도포 시기 등을 공유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산칼슘 50배 액을 살포하고 미세살수와 햇벌 가림막 등을 설치한 농가에서는 햇벌 데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비세살수 장치는 온도가 32°C일 때 가동하고 10분 동안 뿌린 뒤 5분간 멈추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 고품질 무주 반딧불사와 생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전라육성 품목으로 호로(350.2ha)와 후지(372.2ha)를 주로 생산하는 전국 주요 산지 중 하나로 올해 수확량은 호로가 8,400톤, 후지가 8,375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구매해도 한시적 상황

장수군은 추석명절과 'Red-Food Festival(제18회 장수 한우량 사과랑 축제)'를 맞이해 한시적으로 장수사랑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상향한다. 구매해도 상황은 전방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장수군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방침을 따라 할인율은 10%로 유지, 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1인 월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품권 구매한도는 지역형 카드형을 합산한 금액이며 상품권은 모바일 앱(지역사랑상품권 chak) 또는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지역 내 1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휴대폰 앱을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판매 대행점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편리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 '사과·천마·낙화놀이'의 고장 위상 높이자'

### 무주군 안성면민의 날 성료 체육 경기·축하 공연 등 진행 면민회장 시상·표창 수여식도



제51회 무주 안성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가 15일 안성면 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린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51회 무주 안성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가 15일 안성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됐다.

무주군 안성면(면장 김일중)이 주관하고 안성면 청년회(회장 김유신)가 주최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윤정훈 도의원과 무주군의회 의원들, 그리고 재경 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과 재경 안성면민회 김병구 회장 등 내빈과 출향인, 그리고 주민 등 4천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개막식을 비롯해 안성면 지역 8개 행정리 대항 배구, 족구,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계주 등 체육 경기와 안성면민의 날 기념 노래자랑,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됐으며 식전 행사로 안성 칠연골풍물패의 길놀이, 무주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원들이 펼치는 캘리그라피 퍼포먼스가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안성면 덕유산로 박일원 씨가 안성면 문화체육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안성면민의 날 장 문화체육상을 받았으며 칠연로 김정환 씨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 기에 이바지한 공로로 안성면민의 날 장 환경장상을 수상했다.

안성면 이장협의회 김윤중 총무와 오천마을 송운선 부녀회장, 재경안성면민회 소태섭 부회장이 투철한 사명

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과 면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또 안성면생활개선회 이명자 회장과 무주농협안정지점 문광영 씨가 남다른 희생과 이웃사랑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에 앞장서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는 재경무주군민회 김철호 회장이 안성면청년회 측에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고 재경안성면민회 김병구 회장이 안성면에 이웃돕기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해 눈길을 끌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더위로 힘든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난주 우리 지역 홍로가 서울 가락동시장에 출하가 됐다"라며 "병해와 병해 등으로 인한 지난해 부진을 씻고 시원

하게 물결을 터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사 현장에서 애를 쓰시는 여러분이 더 큰 결실을 수확하실 수 있도록 기후변화와 인구감소, 각종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성의 내일을 고대하며 오늘 이 자리 면민의 날이 든든한 에너지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진안군,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강화

진안군은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진안군은 관내 유관기관(의료기관, 학교) 일일 신고 감시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추가감사 등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있으며 △기침예절 실천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등 호흡기 감염병 5대 예방수칙을 누리집에 게재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한 각종 회의에서 적극 알리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치료제 사용이 늘어 전국적 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진안군은 코로나19 치료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를 중심으로 담당 약국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위하여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진안군은 지난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립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시설계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자연휴양림 계획 개요, 실시 설계, 사업비 분석, 건축설계 개요 등을 보고하고 질의 토론회는 순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군립

자연휴양림은 부귀면 황금리 산190번지 일원 39ha에 조성하게 된다.

자연휴양림에는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방문자센터, 야영장 등 각종 휴양 시설이 설치돼 급증하고 있는 산림휴양 관광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며, 승인이 완료되면 조성 사업에 착수해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환경농업대학, 치유 농업 민간전문가 육성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진안환경농업대학 치유농업과정 교육생 30명이 민간자격증인 '원예심리지도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꽃과 식물을 이용하여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육체적 회복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원예치료사양성과 원예심리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해 이번 과정을 운영했다.

원예심리지도사는 원예치료학 개론 및 원예치료 적용기법 등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총 4회, 16시간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통과한 교육생만이 취득할 수 있으며, 수강생 중 신청 인원 31명 중 30명이 시험에 통과되며 진안군 치유농업을 이끌 민간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고경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민간자격증 취득을 통해 농업인들의 전문능력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농촌생활 활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